65세 이상 연금액 55만원…노후대비엔 너무 적다

〈전남〉

2022년 기준…50만원 미만 60% 이상, 25만원 미만 20%

전남, 수급률 17개 시도 중 가장 높지만 수급액은 전국 꼴찌

#.나주시 대호동에 거주하는 조모(여·65)씨는 최근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 지난 2021년 직장을 그만둔 뒤 유일한 수입처인 60만원 가량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만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다.

조씨는 "연금이 갈 수록 줄어들 것이란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있는 만큼, 퇴직했다고 가만히 있기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취업을 결심했다"며 "지금 당장은 퇴직금도 남았고, 여유가 있지만 흔히 '100세 시대'가 열린 만큼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노후를 더 탄탄하게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전남지역의 연금 수급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지만, 월평균 수급액은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 연금 수급자 수는 지난 2022년 기준 41만 3000명, 수급률은 94.7%로 전국 평균(90.4%)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 연금 수급률을 보면 전남이 가장 높았고, 전북(93.3%), 경북(93.2%), 경남(92.8%), 충북(92.1%)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이 가장 높은 수급률을 기록했지만, 고령층의 월평균 수급액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지역 월평균 수급액은 55만 1000원으로, 전국 평균(65만원)보다 9만 9000원 낮았다. 뒤이어 충남(55만 8000원), 인천(57만 7000원), 경북(58만 8000원) 순이었다.

연금 수급자 및 월평균 수급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노후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연금 수급자는 지난 2022년 기준 818만 2000명으로 전년(776만 8000명) 대비 5.3% 늘었다. 연금 수급률은 90.4%로 1년전보다 0.3%포인트 늘었다. 연금 수급자 및 수급률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난 2016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으로 전년(60만원) 대비 8.3% 늘었다. 다만, 수급한 연금액의 중간 수준을 뜻하는 중위금액은 41만 9000원 불과했다.

특히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비율이 전체 연금 수급자의 60%를 웃돌았다.

수급금액별로 보면 월평균 25~50만원이 40.4%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50~100만원(27.5%), 25만원 미만(19.9%) 순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 2022년 기준 58만원으로, 전년(53만 9000원)보다 7.6% 늘었다.

연금 수급 인구는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높은 여성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 수급자는 376만 8000명, 여성 수급자는 441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수급률은 남성이 95.1%로 여성(86.8%)보다 높았다.

남성이 받는 연금수급액은 여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월평균 연금액은 남성이 84만 2000원, 여성은 48만 6000원이었다.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액은 취직 및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별 수급 현황을 보면 4대 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취직 중인 등록취업자는 월평균 74만 5000원을 수급한 반면, 미등록자는 61만 1000원을 받았다. 또 주택소유자는 월평균 82만 5000원, 미소유자는 50만 8000원의 연금을 수급했다.

종류별 월평균 수급액은 직역연금이 252만 3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퇴직연금(158만 3000원), 국민연금(41만 3000원), 기초연금(27만 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통계청은 연금 가입 및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등 11종의 연금 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세계 2000대 기업 한국 기업 61개…신규 진입 평균보다 낮아

삼성전자 21위·현대차 93위

대부분 중상위…500위내 9곳

지난 10년간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에 새롭게 진입한 한국 기업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2024 세계 2000대 기업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은 61개 등재됐다.

이들 61개 기업 중 10년 전인 2014년 명단에는 없었으나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16개로 비율로는 26.2%였다.

전체 2000대 기업 중에서는 33.8%인 676개가 신규 진입 기업이었다. 즉 한국 기업의 신규 진입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셈이다.

기업 수 상위 10개국 안에서는 중국(59.3%), 인도(42.3%), 미국(37.5%) 순으로 신규 진입률이 높았다.

산업별로 10년간 신규 진입률을 보면 IT 소프트웨어가 61.6%로 가장 높았다. 비즈니스 서비스(53.9%), 금융투자(45.3%), 헬스케어(43.6%), 유통(40%), 제약(3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철강·소재(23.1%), 석유·가스(17.7%), 통신(12.5%) 등의 업종에서는 신규 진입률이 낮았다.

20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대부분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61개 한국 기업 중 9개(14.7%)만 상위 500위 안에 들었다. 이는 미국(176개), 중국(57개), 일본(45개) 등 등재 기업 수가 많은 국가뿐 아니라 한국보다 등재 기업 수가 적은 독일(18개)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500위 내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21위), 현대차(93위), 기아(234위), KB금융그룹(250위), 신한금융그룹(304위), 하나금융그룹(411위), 포스코(412위), 현대모비스(465위), 삼성물산(493위)이다.

기업 수익성을 나타내는 척도인 순이익도 한국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 기업 수로는 한국이 61개로 6위인데, 국가별 등재 기업의 순이익을 모두 합한 전체 순이익 규모는 649억달러로 12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광주경총 회원사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1일 '2024년도 3차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협의회에서는 '노동법 위반 사례', '사업장 근로개선 방향', '고용부 기업지원 사업' 등 노무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연과 함께 광주광역시교육청 '빛고을혁신지구사업'에 대한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임학근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강연자로 나서, 상반기 사업장 근로감독 현장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최민호 광주시교육청 장학사가 빛고을혁신지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빛고을혁신디구사업은 전남지역 13개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역정주지원금 지원으로 취업자 장기근속 지원 ▲미래형 운송기기·에너지·AI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한 회원사 참여와 9월 열리는 지역우수기업 초청 광주시교육청 성과보고회에 대한 관심을 부탁했다.

또 광주고용센터 이은순 취업지원총괄 팀장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운영중인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사업 등을 안내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경진원 '구인·구직 만남'

혁신도시 인력난 해결 총력전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도 구인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전남경진원)에 따르면 일손 부족 문제로 정상적 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입주기업들을 위한 직원 채용에 나섰다.

경진원은 이날 나주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전 협력업체들을 위한 '2024년 제3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2개 협력업체가 13명의 직원 채용에 나섰고 25명의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 참여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경진원 일자리종합센터와 시·군 일자리센터 간 협업을 통해 구인 기업에게 적합한 인재를 발굴·알선한 뒤 기업과 구직자의 현장 면접을 추진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패스트 트랙 채용' 방식으로 열려 지역 기업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전남경진원 관계자는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도내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조업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도장터 팝업 스토어…추석 선물세트 할인

전남도 대표 온라인쇼핑몰 남도장터(대표이사 김경호)는 추석을 앞두고 22일부터 28일까지 '롯데아울렛 남악점' 1층에서 남도장터 입점상품 팝업스토어(사진·오프라인 직거래 행사매장)를 운영한다.

남도장터는 팝업스토어를 통해 고객들이 남도장터 상품을 직접 접해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과, 꿀, 버섯, 김 등 4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10% 할인가에 판매한다.

구매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는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jnmall.kr) 할인쿠폰을 증정한다. 남도장터 카카오톡 채널추가 이벤트를 통해 농특산물 경품을 제공하고, 시식행사와 풍선아트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남도장터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대형아울렛·백화점 등에서도 팝업스토어를 개최할 계획이다.

남도장터 관계자는 "남도장터 브랜드를 더욱 널리 알리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 판로를 넓히기 위해 대형아울렛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신세계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1억원 전달

광주신세계가 제 15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원의 후원금을 쾌척했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22일 광주시청에서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오는 9월 7일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995년 현지법인으로 설립된 뒤 매년 광주비엔날레에 후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낸 후원금은 총 19억원에 이른다.

광주신세계는 또 지난 8일 광주신세계 본관 1층 광장에도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을 설치하고 홍보영상을 틀고 포토존을 마련하는 등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지역민 모두가 즐기는 문화예술 향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조류 대응체계 가동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는 22일 폭염에 의한 조류발생 증가에 대비해 조류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관내 5개 광역 정수장과 16개 수탁 정수장이 대상으로 취수원인 주암댐과 장흥댐의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지만, 녹조발생에 대비해 자체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정수장에서도 정수처리 공정을 강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영섬유역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대응 방안은 ▲수질감시 강화 ▲조류유입 사전대응 ▲정수처리 공정강화 ▲위기대응 강화 및 적기 정보 제공이다.

특히 취수원의 실시간 조류측정장치를 활용하고, 정수장 내 냄새 관능검사를 강화해 조류 유입을 조기에 감지하고 조류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취수구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생활협동조합 가입 조합원 175만명 넘어…매출 1조원 육박

2022년 기준 생협 수 401개

'자연드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의 수가 2022년 1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에 해당하는 총공급액은 1조원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6월 시행된 개정 생협법에 따라 2022년 말 인가된 생협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생협은 상부상조 정신과 소비자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물품·용역·시설 등의 공동 구매와 이용, 판매를 자치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022년 기준 생협 수는 401개였다. 지역 생협이 196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이 171개, 대학생협이 34개였다. 5개 이상의 생협이 모여 설립한 연합회는 총 7개였다. 자연드림을 운영하는 아이쿱과 한살림 등 지역 생협 관련 연합이 4곳, 한국소비자생협연합회 등 의료 생협 관련 연합이 2곳, 대학 생협 관련 연합이 1곳이었다.

전체 생협의 조합원 수는 총 175만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조합당 평균 조합원 수는 4383명이다.

총 출자금은 2631억원, 총공급액은 9667억 원이었다. 조합당 평균 공급액은 24억원이다.

여성 조합원의 비중은 지역 생협이 87.2%로 가장 높았다, 고령자 조합원(65세 이상)의 비중은 의료생협이 24.2%로 최고였다.

대학 생협은 이사장의 90% 이상이 무급이었지만 의료생협은 무급형 이사장이 29.1%에 불과했다.

대학 생협은 95.7%가 근로자를 고용했다. 조합당 평균 근로자는 46.4명이었다.

지역 생협은 60% 이상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7.67 (+6.54)
↓	코스닥	773.47 (-6.40)
↓	금리 (국고채 3년)	2.907 (-0.033)
↑	환율 (USD)	1336.95 (+0.35)